



총여학생회(총여)가 지난 6번의 대자보 논쟁에 처음 입장을 밝혔다. 청운관 앞에서 학생들이 총여의 대자보를 읽고 있다

총여, 대자보로 입장 밝혔지만 존속 필요성에 대한 논란은 계속

총여학생회 대자보 논란

방누리 nurib423@knu.ac.kr

【서울】 총여학생회(총여)가 지난 27일〈우리시대 ‘김커피’에게 전하는 첫 번째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대자보를 게재했다. 이는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3일까지 계속된 총여의 존폐와 가치에 대한 ‘대자보 논쟁’ 이후 총여의 첫 대자보다. 당시 대자보 논쟁에서는 학내 성폭력 문제부터 총여의 역할이나 전문성, 투표권 등 다양한 주제를 놓고 치열하게 논의가 이어진 바 있다.

총여는 〈우리시대 ‘김커피’에게 전하는 첫 번째 이야기〉를 통해 여성이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겪는 어려움에 대해 언급했다. 사회적인 시선으로 인한 끊임없는 외모 가꾸기와 어두운 골목길에서 불안을 느끼게 되는 여성, 술자리에 오랫동안 함께하기 어려운 점 등을 들며 이렇게 만드는 사회적 분위기와 배경을 비판하고 이를 변화시키기 위해 총여가 필요함을 주장했다.

또한 ‘유대감이 높은 과동아리 집단 속

에서 불편한 감정을 느꼈을 때 쉽게 문제제기하기 어렵다’며 ‘이런 두려움이 차별과 잘못된 문화를 묵인하고 암묵적으로 동의하게 만들며 대학 내 성폭력·성희롱·성차별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총여는 대자보를 통해 ‘대학이 사회 속에 존재하고 대학의 구성원들이 사회에서 살아가는 한, 대학은 사회의 성차별로부터 청정지역이 될 수 없다’며 ‘대학이라는 사회에서 평등한 문화를 공유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총여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이는 〈총여학생회는 무엇과 싸우고 있습니까?〉라는 대자보를 게재했던 김영환(경제학 2011) 군을 비롯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여러 차례 지적된 총여의 존재이유와 역할에 대한 물음에 나름의 답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총여 김혜영(아동가족학 2012) 회장은 “김영환 군의 대자보가 게재되기 전 김 군으로부터 사전에 질문지를 받아 답변을 드렸었고 대자보를 통해 김 군의 견해뿐만 아니라 많은 학생들의 생각을 들을 수 있었다”며 “그동안 하고 싶은 말들을 구체적으

로 정리했고 사람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자보 논쟁을 통해 지적됐던 ▲총여의 남학생 자치회비 사용 문제 ▲총여생회 산하 성평등위원회의 개편과 같은 이슈는 이번 대자보에서 언급되지 않았다. 더불어 총여가 해당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있는지도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총여는 앞으로 두 번의 대자보를 더 게재해 입장을 밝힐 계획이라고 전했다. 두 번째 대자보에는 자치회비구조에 대한 문제와 성평등위원회가 아닌 단독적으로 총여가 있어야 하는 이유를, 세 번째 글에서는 총여가 그동안 해온 역할과 성과 그리고 앞으로의 역할과 어떻게 활동해 나갈지에 대한 입장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금 회장은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성희롱이나 성차별을 느낀 여학생들은 총여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변화시키고 싶어한다”며 “남자와 여자의 대결구도가 아닌 유학생들의 어려움을 돋는 총여학생회와 같이 어려움을 개선하고 싶은 여학생들의 단체로 총여를 봄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관장 부총장 통해 폭언 사과 노조측 “공식사과는 아니지만 수용하기로”

노조 - 박물관측 갈등 수습국면

이승연 기자 leesy0317@knu.ac.kr

노동조합(노조)과 혜정박물관 간 성명서전이 지난 20일 혜정박물관 김혜정 관장이 이승한 부총장을 통해 사과하면서 진정되는 모양새다. 노조도 사과를 수용했고, 폭언의 피해자이자 원인이기도 했던 감사행정원 역시 혜정박물관과 감사절차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다.

지난달 노조의 성명서로 외부에 알려졌던 폭언논란은 3차례 걸친 노조-박물관 간 성명서전으로 이어졌다. 대학주보 제1588호(2015.04.12.) 3면 성명서전은 지난 12일 김혜정 관장의 ‘존경하는 동료 교수님께’라는 메일에 이어 지난 17일 노조가 2차 성명서를 게재할 때까지 합의가 요원해보였다. 김 관장은 메일을 통해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었다. 감사원이 ‘개인이 수집한 사료 목록’을 부당하게 가져간 것과 자료반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사과와 노조의 부당한 징계요구를 문제 삼았다. 김 관장은 끝으로 “이번 사안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고 나아가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대학은 김 관장의 부적절한 언행을 면밀히 조사하고, 교원인사위원회 징계여부 결정사항을 노조 측에 정식으로 통보할 것’과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인권보고 및 구성원 윤리강화 관련 제도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세부지침을 마련해 엄격히 준용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감사행정원과 혜정박물관이 감사절차에 합의하고, 지난달 20일 감사의 일환으로 면담을 진행하면서 고인 문제를 풀렸다. 감사행정원 조성인 계장은 “김 관장의 입장이 전과 달라졌다고 보긴 힘들지만, 합의를 통해 감사에 응해줬다”며 “앞으로도 감사를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논란이 됐던 감사절차에 대한 문제가 해결된 만큼, 정기감사를 그대로 이행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27일 김 관장은 폭언에 대해서도 사과했다. 김 관장의 일본 출장으로 인해 해당 직원에게 이승한 부총장을 통해 사과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도 직원에 대한 김 관장의 사과를 수용했다. 노조 송혜경 위원장은 “공식적인 사과 형태는 아니었지만 당사자에게 사과한 만큼 인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노조는 대학본부에 요청한 김 관장의 교원인사위원회 징계여부와 관련해 피해당사자가 신고 하지 않는 이상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입장을 전달받은 상태다. 한편 노조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윤리강화를 위한 ‘존중 문화합의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합의문에는 양 캠퍼스 학부, 대학원 총학과 직원, 교수의회도 참여할 계획이다. 송 위원장은 “이번 혜정박물관 사태에서 성명서 개재의 목표는 ‘존중 문화’를 만드는 것이었다”며 “이번 사건이 좋게 마무리돼 서로 존중하는 문화로 가는 좋은 시작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사건 흐름

- 5월 노조 윤리강화를 위한 ‘존중 문화합의문’을 발표 계획
- ▲ 4월 27일 김 관장, 이승한 부총장을 통해 폭언 사과 전달
- ▲ 4월 20일 감사원-혜정박물관 감사 면담
- ▲ 4월 17일 노동조합 2차 성명서 게재
- ▲ 4월 12일 혜정박물관 김혜정 관장 ‘존경하는 교수님들께’ 메일 발송
- ▲ 4월 1일 김 관장 명의에 입장문 발표
- ▲ 3월 27일 노동조합 1차 성명서 게재
- ▲ 3월 24일 김 관장 감사행정원 방문, 담당직원에게 폭언

2015년도 국제캠퍼스 대학직장예비군 기본훈련 안내

2015년도 국제캠퍼스 예비군 기본훈련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대상자는 훈련에 적극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요

가. 예비군 복장(전투복, 전투모, 전투화, 요대, 고무장)을 규정대로 착용할 것(미 착용 시 입소 불가)

나. 훈련일자 : 대학(학과별) 훈련 일정

훈련일자	훈련 대상 학과	시간
5월 26일(목)	● 외국어대학 ● 생명과학대학 ● 전자정보대학 : 컴퓨터공학	
6월 19일(월)	● 체육대학 ● 예술 - 디자인대학	
6월 2일(화)	● 전자정보대학 : 전자·전기공학, 생체의공학	09:00
6월 3일(수)	● 국제대학 ● 국제 경영대학 ● 동서양대학 ● 공과대학 : 환경공학, 정보전자신소재공학, 산업경영공학	~ 18:00
6월 4일(목)	● 공과대학 : 건축공학, 건축학과, 사회기반시스템공학, 환경학및환경공학 ● 토목건축대학 ● 음악대학	
6월 5일(금)	● 공과대학 : 기계공학과, 원자력공학	
6월 8일(월)	● 일반 / 문화 / 특수 대학원 ● 교직원	

* 개인별 대상자 명부는 훈련 2주 전에 대학(원)별 학과 행정실 및 학교 홈페이지 일반 공지사항에서 확인

2. 준비물

가. 예비군 복장(전투복, 전투모, 전투화, 요대, 고무장)을 규정대로 착용할 것(미 착용 시 입소 불가)

※ 특히 전투화 미 착용 시 입소 절대 불가함

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학생증, 여권) 필히 지참할 것

3. 교통 안내

가. 학교지원 차량(임대 버스)을 지하철 2호선 강남역 및 국제캠퍼스 정문 앞 2곳에서 운용

1) 강남역 : 강남역 1번 출구 200m전후 우편은행 365코너 앞에서 07:40 출발

2) 국제캠퍼스 : 학교 정문에서 07:50 출발

나. 개인별로 입소할 예비군 학교 홈페이지 훈련안내문에 공지된 훈련장 오도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4. 유의 사항

가. 대상자 명단에 누락된 예비군은 임의로 훈련에 참가할 수 없으므로 예비군 연대본부에 확인 후 훈련에 참가하여야 한다는 유의함

나. 개인 사물보관함에는 분실 우려가 있으니 귀중품(시계, 금전, 반지 등)은 보관하지 말 것(분실시 개인 책임을 명심할 것)

다. 대학(학과별) 훈련일정은 훈련부대의 수용 인원을 고려한 것으로 훈련일자 변경은 절대 불가함

라. 15년 훈련 시 입소통제 지침(09:00~09:30 : 입소불가 / 신고불참, 09:30~10:00 : 입소불가 / 무단불참)

마.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는 흥보매체(대학본부)에 게시판, 대학주보, 대학방송, 학과 홈페이지로 공시된 훈련대상 명부로 대신하며, 필요시에만 개인 별증함

바. 기타 훈련에 의문사항이 있을 시 연대본부(전화 031-201-3265~9)에 문의하기 바랍니다

국제캠퍼스 예비군연대

『책읽기의 즐거움』 제6회 명사특강 개최

중앙도서관에서는 독서문화 창조를 위한 연중기획으로 「책읽기의 즐거움」 제6회 명사특강을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일시 : 2015년 5월 13일(수) 오후 1시 30분 ~ 3시
- 장소 : 중앙도서관 피스홀
- 초청강사 : 서덕영 교수(전자정보대학 전자·전파공학과)
- 강연제목 : 직업의 미래 '미디어는 메시지이다'

〈약력〉

● 학력

- 서울대학교 핵공학 학사
- 미국 조지아텍 전기 및 컴퓨터공학 박사

● 주요경력

- 생산기술연구원 HDTV 개발단
- (現)경희대학교 전자정보대학 교수

※ 수업현장 조작 가능

※ 문의 : 중앙도서관 열람과 ☎ 031-201-3217

국제캠퍼스 중앙도서관

경희대학교 개교 66주년 기념

